

손민숙 연구원

요약

유럽연합(EU)은 생체 인식, 신용 평가 등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고위험 AI에 대해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어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 EU의 인공지능법 도입은 AI 기술을 적극 도입 중인 보험산업에 일부 영향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4월 유럽연합(EU)은 생체 인식, 신용 평가 등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법안은 회원국 간의 협의, 승인을 거쳐 2023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¹⁾
 - 이번 초안은 2020년 발표된 디지털서비스법(DSA)²⁾과 디지털시장법(DMA)³⁾의 연장으로, AI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개인의 안전과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초안은 AI를 위험의 정도에 따라 불허용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해당 항목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이미지 인식을 포함한 생체 인식, 신용 평가 등 '고위험 AI'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표 1〉 인공지능 위험 구분

| 위험 수준 | 내용 |
|---------------------------|---|
| 불허용 위험(Unacceptable Risk) | 국민의 안전, 생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자유의지를 따르지 않는 AI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 |
| 고위험(High-Risk) | 국민들의 권리,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공공 서비스, 교육 또는 채용, 신용 판단 및 사법 집행 등이 포함됨 |
| 제한적 위험(Limited Risk) | 명확한 투명성이 요구되고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챗봇과 같은 시스템 사용 시 사용자가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 |
| 최소 위험(Minimal Risk) | 대다수의 AI 시스템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국민들의 권리나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비디오 게임 또는 스팸 필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 |

자료: EU(2021. 4. 21)

1) EU(2021. 4. 21),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 EU(2020. 12. 15), "The Digital Services Act: ensuring a safe and accountable online environment"
 3) EU(2020. 12. 15), "Digital Markets Act: Ensuring fair and open digital markets"

- 인공지능법 시행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협의, 승인 등 절차가 요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EU는 고위험 AI에 대해 적절한 위험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 추적을 위한 로그 자료 확보 등을 요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상세 문서,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인적 감독 조치, 높은 수준의 보안 및 정확도 등을 마련하도록 함
- 고위험 AI에는 시민들의 생명 및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인프라(교통 등), 신용 점수와 같은 필수적인 민간 또는 공공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시험 채점, 수술 보조 로봇, 이력서 분류 소프트웨어, 법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 이주 또는 망명 및 국경 통제, 사법 행정 및 민주적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 등이 있음
 - 특히 원격 생체인식시스템의 경우 실종 아동의 수색, 테러범 탐색 등과 같은 경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적인 공간에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AI 시스템이 인종·성적 차별을 지양하고 편향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음
 - 초안은 고위험 AI 사업자가 데이터 관련 금지요건 위반 시 3,0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총 매출액의 6%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기타 요건 또는 의무 위반 시 2,0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총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벌금을 부과함⁴⁾
- 이번 인공지능법 초안은 국가 차원의 AI 규제로는 최초이며, 광범위한 산업과 분야에 대한 규제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어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⁵⁾
- 법안이 도입되면 EU 내 각 회원국은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감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대상에 대해 행정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린 후 이를 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함
 - 찬성하는 측은 AI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해지며 AI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위험 AI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정도가 적정하다고 평가함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IT 기술 및 발전에 한계를 설정하여 산업 혁신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의해 기술이 오·남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가 과도하다고 평가함
 - 일각에서는 IT 및 AI 기술로 앞서가는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며⁶⁾, 한편에서는 급격한 IT 기술의 변화에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 EU의 인공지능법 도입은 글로벌 기업을 시작으로 AI 기술을 적극 도입 중인 보험산업에 일부 영향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급성장하며 보험산업 또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았으나, AI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4) EU(2021. 4. 21), "New ru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Questions and Answers"

5) WSJ(2021. 4. 21), "Artificial Intelligence, Facial Recognition Face Curbs in New EU Proposal"

6) Insurance Journal(2021. 4. 26), "EU Privacy Supervisor Urges Ban on Facial Recognition Software"